

# 식민지 조선 재일본교유학생의 동향: ‘조선불교단’ 포교유학생의 “친일” 양상을 중심으로\*

제점숙\*\*

## | 목 차 |

I. 머리말	및 현황
II. ‘조선불교단’과 기관지 『조선불교』	IV. 맺음말: 포교유학생의 “친일” 양상과 그 의미
III. 조선불교단의 포교유학생 파견	

## | 논문요약 |

일제 시기 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조선불교단’은 조선불교의 어용화와 더불어 친일 조선인을 양성시킨 대표적인 친일단체로 규정되어 왔다. 특히, ‘조선불교단’의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하에 일본유학을 떠난 조선인 포교유학생은 일본불교를 모방하고 전통불교와 계율불교를 파탄시킨, 나아가 대처승이라는 수식어마저 탄생시킨 ‘친일’의 대표적 표상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없다. 포교유학생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어떠한 행적을 ‘친일행위’라 볼 수 있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조선불교단의 ‘포교유학생’을 중심으로 그들의 실태와 동향에 대해 조선불교단에서 간행한 『조선불교』 잡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 살펴본 조선불교단의 포교유학생들은 오늘날 ‘친일-항일’의 이분법적인 인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친일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여전히 ‘친일-항일’이 근대 한국의 불교계를 논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담론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글은 조선불교단의 포교유학생을 대상으로 친일 의미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가능성을 제공했다 할 수 있다.

▪ 주제어: 조선불교단, 조선불교, 포교유학생, 친일, 근대불교

\* 이 논문은 2015년도 동서대학교 ‘Dongseo Frontier Project’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동서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부교수.

## I . 머리말

3.1운동 발생 후 일제는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로 식민지정책을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종교과가 신설되는데, 조선총독부 내의 이와 같은 변화과정에는 나날이 세력을 확장해 가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을 의식한 부분이 한몫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천도교나 불교와 같은 조선의 고유 종교라 불릴 만한 것을 교묘하게 이용, 조선의 민족주의운동을 분열·해체시키려는 식민지정책의 안정화를 꾀하려는 새로운 장치로도 작용하였다.<sup>1)</sup> 그때 일제가 주목한 것이 조선불교의 ‘어용화’였다. 이를 위해서 총독부는 직접 통제 및 관여하는 것이 아닌, 일본인, 친일 조선인, 친일단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하지만 일본불교의 경우, 이를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주지하듯이 일본불교의 조선 내 활동 부진과 일본 종파 간 조선사원을 둘러싼 쟁탈경쟁은 조선총독부로서는 골칫덩어리였던 것이다. 이에 종파를 초월한 일본불교의 협력이 필요하였으며, 무엇보다 조선불교가 주체가 되어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정책에 발맞춰 주기를 기대했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기대에 부응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조선불교단’이었다(中村直樹 2013, 165-166).

이상의 흐름에서 보자면 ‘조선불교단’은 조선불교의 어용화를, 그리고 친일 조선인을 양성시킨 대표적인 친일단체로 자연스럽게 규정할 수 있다. 하물며, 이러한 ‘조선불교단’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일본으로 유학 간 조선인 포교유학생들은, 일본불교를 모방하고 전통불교와 계율불교를 파탄시킨 대처승이라는 수식어마저 탄생시킨 ‘친일’의 대표적 표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평가에 의해 포교유학생들의 행적이 덮여진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sup>2)</sup> 포교유학생의 전반적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당시 그들의 어떠한 모습을 친일적인 행위로 간주할 수 있을까?

- 
- 1) 이에 대해서는 당시 총독으로 새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1990)의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최근 이와 관련하여 유일한 논고로서 김광식(2017)의 연구가 있다. 여기에서는 조선불교단 포교유학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김효경이라는 한 인물에 중점을 두고 있어 포교유학생의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조선불교단의 '포교유학생'을 중심으로 그들의 실태 및 동향에 대해 조선불교단에서 간행한 『조선불교』 잡지 기고문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물론 이들의 삶 속의 친일 행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 전체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들의 친일 행적은 포교유학생에서 그 시작을 보고 있기에<sup>3)</sup> 이 시기의 행적에 대한 성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여전히 '친일-항일'은 근대 조선의 불교계를 논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담론이며 이에 대해 '재확인'(김순석 1995; 윤기엽 2017) 또는 '극복'(마이카 아워백 2008)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학계의 일반적 견해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여전히 '친일'이라는 용어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이르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sup>4)</sup>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조선불교단의 포교유학생의 실태 및 현황 속에 드러나는 친일의 의미 재고와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조선불교단'과 기관지 『조선불교』

조선불교단의 포교유학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불교단'이라는 단체의 성격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sup>5)</sup> 조선불교단은 주로 강연회 개

- 3) 오늘날 '현재적 관점'에서의 한국의 근대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선불교단이라는 단체에 관여된 것 자체만으로, 이러한 단체의 포교유학생으로 지원 및 선발, 유학을 갔다는 것만으로, 이미 그들은 친일의 카테고리에 포함시키고 있다.
- 4) 마이카 아워백(2008)의 연구가 유일하게 대처승을 둘러싼 친일불교에 대한 연구를 개선하고 있을 뿐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는 그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5) 조선불교단에 대한 연구는 조선불교단의 설립 경위에 주목한 김순석(1995)의 "조선불교단 연구(1920-1930)"와 조선불교단의 성립에 있어 임원진의 행적에 중점을 둔 윤기엽(2017)의 "일제강점기 조선불교단의 연원과 사적 변천: 조선불교단 임원진의 구성과 이력을 중심으로", 조선불교단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았지만 일본인의 조선불교부흥운동에 중점을 둔 강문선(2016)의 "1920-1940년대, 일본인의 조선불교부흥운동과 그 양상: 나카무라 겐타로(中村健太郎)의 『朝鮮生活 20년』을 중심으로"를 들 수 있다. 마이카 아워백(2008)의 "'친일불교'역사학의 재고: 조선불교단과 1920년대 조선에서의 승려결혼에 대한 논쟁"에서는 대처승을 둘러싼 논쟁에서의 '친일' 문제에 대해 논고를 전개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로는 주 2에서 언급한 김광식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최, 내지불교시찰단 파견, 조선인포교유학생 양성, 각 불교 단체와의 연락 및 후원, 기관지 『조선불교』 간행 및 연구조사, 자선·사회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실시하였다(『朝鮮佛敎』 1924/12, 50). 이 글이 조선불교단에서 파견한 조선인 포교유학생에 중점을 둔 까닭으로, 이장에서는 조선불교단의 설립 경위와 참여한 주요 일본인, 그들의 동선 파악이 가능한 『조선불교』 잡지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조선불교단의 구체적인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기약한다.

### 1. ‘조선불교단’의 설립과 주요 인물

조선불교단은 1920년 조선불교대회<sup>6)</sup>에서 그 시작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불교대회의 창립은 교토제국대학을 졸업하고 1904년에 한국으로 건너와 남대문에서 조지야(丁字屋)란 주식회사를 경영하던 고바야시 겐로쿠(小林源六)와 1924년에 조직된 내선융화 단체였던 동민회(同民會)<sup>7)</sup>의 실무담당자였던 나카무라 겐타로(中村健太郎) 등이 주축이 되어 창립되었다. 이하 이 두 인물에 대해 간략히 개관한다.

고바야시는 일본의 유명한 실업가이자 조선불교대회를 창립한 주 멤버로 1904년 경성 남대문에서 조지야 주식회사를 경영한 인물이다. 또한 조선불교단의 기관지 『조선불교』의 창간 때에는 상임이사를 맡기도 했다. 그가 운영하던 조지야는 조선에서 최고가는 일류 양복점이었으며, 이후 백화점으로까지 사업이 확장되기도 하였다. 고바야시는 집안 영향으로 일찍이 일본불교 진종의 신자였는데, 사업가이기 이전에 불교 신행을 조선에서도 실천해 나가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개점 전에 제1층 정면에 전원이 모여 본산의 불사(佛事)와 거의 흡사한 엄숙함으로 거기가 큰 목어까지 두드리면서 사장과 전무 등이 선두에 서서 수양과 백화점

6) 조선불교대회의 발기는 1920년 9월 이른바 조선불교를 부흥시킨다는 것을 목적으로 내걸고 조선과 일본의 제 명사를 망라해서 발회하였으며, 이 대회에서 조선불교의 발전계획을 도모하였다(김순석 1995, 129).

7) 동민회는 내선융화와 동아민족의 결속을 목적으로 조선의 실업가, 종교가, 교육가 그 밖의 방면에서의 유력자를 망라한 단체로 조선불교단과의 관계도 깊다.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아 나카무라 겐타로가 설립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中村直樹 2013, 183).

개점"을 준비하기도 하였다(中村健太郎 1969, 170). 또한 고바야시는 집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조선의 하층민들을 구세군을 통해 선행을 베풀기도 하였다. 굳이 구세군을 통해 그의 뜻을 전한 이유는 당시 불교는 기독교 처럼 사회사업이 활발하지 않아 이들을 빨리 도울 수 있는 길은 구세군 쪽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행에 대해 나카무라(1969, 169)는 "종교를 초월하여 빈민구제라는 큰 자비를 베푼 점은 실로 감탄하지 않았을 수 없다."고 회상하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나카무라는 고바야시를 찾아가 양복 한 벌을 주문하게 된다.

그 후 나카무라와는 각별한 사이가 되었고, 고바야시는 조선불교단 설립에 거금을 투척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조선불교단에서 고바야시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불교의 사회사업 실천을 위한 인재양성사업에 주력하였다. 특히 불교의 사회참여를 위한 전국 순회를 통해 만난 조선의 승려에게 조선불교단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조선-필자)불교단은 불교의 외호단(外護團)으로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불교자의 외호를 사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도에 지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즉, 불교를 실천해야 할 조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실천하는 것은 승려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朝鮮佛敎』 1926/01, 9-10)라면서 조선불교단 창립 초기부터 조선불교단의 활동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갔다.

한편, 나카무라는 구마모토(熊本) 출신으로 제2기 구마모토현 조선유학생으로 파견되어 단신으로 조선에 건너왔다. 현지에서 조선어를 중심으로 한 한어, 수학 등을 3년간 학습하고 난 뒤, 나카무라는 평양의 일본어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였다. 그 후 경부철도회사에 측량반 기사로 입사하여 조선 각지를 측량하면서 현지의 유력자들과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조선의 풍속을 조사 연구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 후 한성순보의 주간, 한국통감부의 경무고문사무 보좌 등을 지냈다. 당시 경성일보사 제4대 사장으로 아베 미츠이에(阿部充家)의 취임은 나카무라가 조선불교계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 아베는 선수행가로 총독부 학무국에 종교과 설치에도 주력할 정도로 조선불교 진흥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조선총독 주최의 조선 불교진흥을 위한 행사에서 나카무라는 아베의 통역과 접대를 담당하였는데, 31본산의 주지의 통역과 접대를 하면서 이들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아 가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나카무라는 조선불교의 역사와 상황을 점차 알아가게 되었던 것이다(中村健太郎 1969).

1923년, 나카무라는 총독부 경무국장의 추천에 의해 앞서 언급한 동민회 모임의 상임이사가 되었다.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책이 추진되면서 1924년 ‘조선불교회’가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후 ‘조선불교단’으로 바뀌면서 나카무라는 이때부터 동민회를 그만두고 ‘조선불교단’의 『조선불교』(1924. 5. 창간) 잡지 간행과 더불어 잡지 일에만 매진하였다.

조선불교단의 당시 설립 의도는 창간호에서 그가 쓴 “승려의 약점과 무자각(僧侶の弱点と無自覺)”이라는 기고문에서 엿볼 수 있다. 나카무라는 잡지가 창간되기 이전 조선인에게 잠재되어 있는 불교정신과 신앙이 조선인의 생활문화에 깊이 스며 있음을 간파하고, 조선불교가 진정 부흥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승려들의 약점과 무자각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약점이란 신앙이 깊은 호법자(護法者)가 없다는 것이다. 즉 일본과 비교하여 조선은 승려를 돕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호법자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의 승려는 조선의 승복이 아닌 일본승려와 같이 양복을 입는다는 것은 조선승려의 전통과 위배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조선 승려는 조선승려다워야 한다는 것’이다(강문선 2016, 401-402 재인용). 이러한 문장 속에는 그것이 형식적이든 조선과 조선인에 필요한 조선불교를 지향하였으며 일본불교를 그대로 모방하는 그러한 조선불교의 모습을 상정하지 않았음이 간파된다.

조선불교단은 대부분이 일본인들로 구성되었다. 1925년 5월에 재단법인으로 개편됨으로써 인물 구성은 일본의 전직 수상이 고문으로 있었는데, 정계, 재계의 실력자들이 대거 약원, 상담역, 고문 등의 자격으로 포진하고 있었다. 조선 측에서는 을사오적들 가운데 한 사람인 권중현이 조선불교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이완용의 형인 이윤용이 조선불교단 단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고문으로 동양척식회사의 설립 당시 이사 겸 조사부장을 맡았던 한상용과 이완용이 선출되었다. 조선불교단을 친일단체라 불리는 이유는 이러한 임원진 구성에서 기인하기도 한다(김순석 1995, 137).

이렇게 설립된 조선불교단은 “조선에 있어서 불교의 진흥보급을 도모하

고 인심을 교화선도 하며 민중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sup>8)</sup>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필요시에 부대사업으로 교육자선 및 기타 사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조선불교단이 타종교기관과 다른 점은 유력한 외호자(外護者)를 다수 확보하는 데 있었다. 즉 조선불교단은 종교기관이 아닌 외호기관임을 강조한다.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여 관민유지 및 관계자를 불교단의 구성원으로 하려는 것은 유력한 외호의 단체를 만들기 위함으로 다른 종교단체와 같이 제일선에 서서 포교전도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朝鮮佛敎』 1927/12, 2).

특히, 내지시찰단 파견과 후술하는 포교유학생파견 사업 역시 이러한 목적 달성의 일환이었다. 조선불교단 사업에 있어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중점적인 사업이 이들 사업이었던 것이다(『朝鮮佛敎』 1926/02, 57-59). 이러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앞서 언급한 조선과 일본에 지부를 설치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 일본에 설치한 지부로는 도쿄, 오사카, 교토, 고베, 후쿠오카의 5대 도시로(『朝鮮佛敎』 1924/12, 11) 조선 내 지부는 다음의 16군데로 집약된다.

조선의 지부는 1925년부터 시작하여 평양, 신의주, 대구, 부산, 1926년에 아주, 전주, 청주, 해주, 1927년에 춘천, 나남, 함흥, 공주로 금년 1월에 각도지부의 완성에 이르렀다. 이로써 반도의 관민유지자들 대부분이 우리조선불교단의 정신적 운동에 참가하게 되었다(『朝鮮佛敎』 1927/12, 2).

그 밖에 조선불교단의 대표적 사업은 조선불교대회<sup>9)</sup>였다. 조선불교대회 개최의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 반도의 불교가 아직 진흥하지 않는 것은 불제자들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도 정신계가 황폐되어 가

8) 조선불교단과 설립과 관련된 공식적인 문서들은 다음의 디지털판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澁澤榮一伝記資料, [https://eiichi.shibusawa.or.jp/denkishiryo/digital/main/index.php?DK420012k\\_text](https://eiichi.shibusawa.or.jp/denkishiryo/digital/main/index.php?DK420012k_text). (2017년 8월 15일 검색)

9) '조선불교대회'는 재단법인 조선불교단의 전신인 조선불교대회와 동일 이름이나 여기서는 조선불교단 설립 후 실시한 일본과 조선의 '불교교류행사'를 말한다.

는 것을 보아도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일반 민중으로 하여금 불타의 대자비에 넘치는 불제자들을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상황하에 반도의 불교 3단체가 연합하여 조선불교대회를 주최하고 조선31본산 주지가 주인공이 되어 내지의 각종 각파의 관장, 문부성의 당국자, 학자, 불교연합회 간부 및 각종 교학부장 및 각 대학 학장 등을 초대하여 조선 불교진흥 방법을 연구하려는 것은 실로 시의 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朝鮮佛敎』 1928/11, 4).

또한 조선불교대회의 목적을 “내선불교도의 교정친목(交情親睦)을 돈독케 하고 조선 불교의 왕성을 촉진하기 위해 서로 협력진보의 길을 가야 하며, 이를 통해 반도문화의 발달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민중의 복지증진에 공헌하게 하기 위함”으로 하고 있다(『朝鮮佛敎』 1928/11, 4). 이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용문에서도 나왔듯이 “이 불교대회는 반도의 3개의 단체가 연합 주최하는 것이긴 하나 그 주인공은 뭐라 해도 조선31본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朝鮮佛敎』 1927/12, 8). 또한 “반도 불교의 지위는 결코 세간에서 말하듯 형편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그 승려의 직권이 실추되었기 때문”(『朝鮮佛敎』 1928/09, 5)임을 지적한다. 이러한 언설에서는 일본 불교의 우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조선의 불교가 그 주체가 되어 진흥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선불교 진흥을 위한 조선불교단의 행보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은 듯하다. 윤기엽(2017, 316)은 조선불교단의 융성기를 1927-1929년으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1927년의 다음의 기고문에서 가늠되듯이 조선불교단에 대한 세간의 불편한 시선, 운영상의 애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간에서는 우리 불교단의 과거 및 현재의 상황을 보고 장래를 우려하는 바가 적지 않다. 아직 불교단은 창립 이래 형식만 갖추고 있을 뿐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한다. 하지만, 세간에서 우리 불교단의 현재 모습을 보고 이러한 의문을 가지는 것도 결코 이상하다고만 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지도 모른다. 즉, 우리 조선불교단이 종교단체가 아니라서, 포교전도의 제1선에 나서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일 것이다. 나아가

불교단은 각 도에 지부를 설치해서는 오로지 관민 유지자들만을 나열하고는 도대체가 무엇을 할 작정인지, 일반인들까지도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朝鮮佛敎』 1927/12, 3).

즉, 위의 기고문에서는 조선불교단이라는 단체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보를 세간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왜 포교활동을 일선에 서서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인지, 또한 지역 관민유지자들만으로 구성된 지부의 애매한 역할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후술하는 10주년 기념이 되는 1934년에 가서도 계속 이어져 갔다.

## 2. 『조선불교』 잡지 간행

조선불교단의 포교유학생의 현황을 통한 친일 양상에 주목하기 위해 이 글이 『조선불교』라는 잡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친일이라 불리는 단체에서 발행한 잡지의 기고문 속에서는 친일적 내용의 문장이 잘 녹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즉 일본불교, 또는 조선총독부를 비판하는 - 식민지정책에 반하는 - 문장이 수록되어 있다면 친일단체라 명명하는 의미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절에서는 『조선불교』 잡지의 간행 배경과 대략적 내용 소개에 그치고 다음 장에서 조선포교생과 관련된 기고문을 통해 그 의미를 고찰하겠다.

창간 1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나카무라(1933, 2-3)는 『조선불교』 간행 당시를 회상하며 발행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한다.

본 잡지 간행 당시 조선의 불교계에는 그 소식을 보도할 기관이 없어서 불교교리 선전은 물론 불교계의 사정에 대해 알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반도의 불교는 사람들의 불신에 빠져 사람들 마음의 지도교화 능력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불교계의 사정을 보도하는 기관이 없는 까닭으로, 가령 그러한 활약을 하고 있어도 이를 사람들에게 알릴 길이 없다. 이에 비해 기독교는 왕성한 활약을 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에는 여러 기관이 있고, 기관을 통해 활발한 포교활동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동양도덕의 근간이고 동양문화의 연층(淵叢)인 불교를 위해 조선불교의 창간을 기획하게 된 것이다.

기독교가 유력한 기관지를 출판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독교 전파를 위한 선전을 시도하는 것에 반해 불교계는 교계의 소식을 보도하고 교리를 선전하는 기관지 하나가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조선불교』 잡지의 사명은 조선에 불교계의 소식을 보도하고,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었다. 발행 목적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朝鮮佛敎』 1927/05, 3-4; 1933/05, 3-4).

첫째, 반도의 불교계 소식을 보도하는 것이다. 즉 31본산은 물론 일본 불교가 조선 내 활약하고 있는 상황을 소개한다.

둘째, 고대 불교가 반도문화에 공헌한 점은 위대한 일이지만, 오늘날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유로 불교가 반도 문화사상 무시할 수 없는 관계임을 천명한다.

셋째, 일본의 불교는 원래 반도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조선의 불교와 일본의 불교와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 오늘날, 일본의 불교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반도의 불교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으니 그 원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선의 불교는 조선불교로서의 특징이 있지만 지금의 조선의 불교는 매우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오해를 타파해야 한다.

다섯째, 오늘날 조선의 불교는 민중과의 교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불교의 민중화에 노력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에서 미루어 짐작컨대, 『조선불교』 잡지의 역할은 조선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의 불교’ 내지는 ‘일본의 불교’의 현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조선의 불교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지 못하는 원인 규명 및 그리고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면서 조선의 불교 민중화에 노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어디까지나 본 잡지 간행의 목적은 조선불교의 진흥, 대중화였음을 강조한다.

한편, 『조선불교』 잡지 간행 초기에는 조선어 기고문도 수록되었지만

점차 일본어 기고문이 중심을 이루었는데, 기고자를 보면, 발행인, 간부 필자도 대부분 일본인이었다. 나카무라, 고바야시를 비롯하여 총독부의 간부, 일본인의 승려와 학자, 일부 조선인 불교도, 포교유학생 외 저명한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 사카이노 코요(境野黄洋), 다카하시 준지로(高楠順次郎), 나이토 코난(内藤湖南) 최남선, 권상로 등도 기고하고 있다. 이러한 기고자들의 성격을 염두에 둔다면, 『조선불교』 잡지의 성격은 불교에 대한 학문적이고 종교적 측면에도 중점을 두었음이 간파된다.

『조선불교』 잡지에 실린 주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지는 종파를 초월하고 반도의 내선(內鮮)불교계의 소식은 물론, 불교사상(佛敎史上)의 조선문화에 미친 영향, 조선불교사의 인물사적(人物事蹟) 연구, 불교사상의 내선(內鮮)관계, 그밖에 다른 분야 권위자의 불교진흥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또는 정신수양 및 신앙문제에 관한 교재 수집 및 조선사정을 소개하는 것”(『朝鮮佛敎』 1933/05, 3-4)이라 한다. 실제 기고문들을 살펴보면, 일본 불교로 개종한 조선 젊은이를 소개하면서 일본식 불교로 개종하는 것을 장려하고, 조선인의 단기 일본 본토 시찰을 후원하는 내용과 참가한 이들의 일본의 선진문물에 감탄한 내용, 조선인학생들을 일본의 불교 교육기관에 장기 유학시킨 내용과 그들의 동향에 관한 내용, 조선불교 상황에 대한 비판적 논고, 그리고 가장 돋보이는 기고문은 조선승려의 ‘대처승’ 문제를 둘러싼 조선과 일본 승려들의 논쟁이다.

이 글 논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중에서 ‘대처승’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마이카 아워백(2008, 39-44)의 논고를 잠깐 언급하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대처승과 관련된 기고자들은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조선불교의 주류라 할 수 있는 사찰에 속한 조선인 승려들이나 평신도들, 둘째, 조선 불교의 주류에 속하지 않은 조선인들, 셋째, 일본 교육기관이나 일본 본토 내에 있는 일본인과 조선인 승려들이라 언급한다. 대부분의 조선 기고가들, 특히 조선 불교 승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밝힌 사람들의 경우, 승려의 혼인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찰령 개정을 받아들이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 조선인 기고자들은 주로 조선 불교의 주류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한다. 특히 일본인 기고가들 중에서 승려의 혼인을 무조건 지지하는 글을 쓴 사람은 거의 없다

는 점에 아위백은 주목하고 있다. 조선의 사찰은 일본과 상황이 달라, 조선의 사찰에서 단가와의 관계가 견고히 정립되기 전에 승려가 혼인과 가족부양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비판한다. 또한, 혼인한 승려들은 사찰의 재산을 거의 전부 가족부양에 사용한다고 말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에 있어서의 대처승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의 관심은 대처승을 둘러싼 찬반의 쟁점보다도 『조선불교』라는 잡지의 ‘언설 공간’에 있다. 대표적 친일단체로 일컬어지는 조선불교단이라는 집단의 성격과는 다소 부적절하고 엇갈린 조선인과 일본인의 목소리가 『조선불교』라는 언설공간에 한데 어울려져 존재한다는 점이다. 친일 불교, 친일 조선인 양성을 위해 치밀하고 확실적인 언설 공간이어야 되는 곳에서 흘러나오는 ‘불협화음’은 『조선불교』의 대처승을 둘러싼 논쟁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선불교』 잡지에서의 친일이라는 언설공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편, 10주년을 기념하는 다음의 문장에서 『조선잡지』의 발전된 모습은 확인되는 바, 그들이 목표하는 데에는 여전히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지 창립 당시는 신문지 반점은 모양의 허술하기 짝이 없었지만 현재는 잡지형태로 바뀌었다. 또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사실과 보도 중심이었던 것을 논설, 의견을 주안으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창간 당시보다도 한층 진전을 보였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잡지가 우리들의 기대를 전부 충족시켰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다만 잡지의 체제와 편호의 내용에 대해서 다소 진보가 있었던 정도로, 아직 원하는 바의 10분의 1도 달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 점차 옛 관행을 개선하고 본지를 후세에도 물려줄 수 있도록, 또한 제현 및 애독자 여러분의 호의에 보답할 수 있도록 결심하는 바이다(『朝鮮佛敎』 1933/05, 4).

이는 곧 『조선불교』 잡지의 역할이 조선불교의 진흥을 위해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앞장에서 언급한 세간의 굵지 않은 시선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경영상의 문제인 듯하다.

또한 이번 기회에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바는 오늘날 이르기까지의 역사이다. 본지는 경영 관계상 1924년 5월 재단법인 조선불교단의 기관에서 운영하였지만, 1928년 7월 조선불교단을 떠나 독립경영으로 전환, 다소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조선 불교단과는 분리 불가능한 관계로 불교단에서 분리되었을 당시 부모의 곁을 떠나는 자식처럼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것도 사실이었다(『朝鮮佛敎』 1933/05, 4).

1928년 7월, 『조선불교』가 독립되는 과정에서인지 7월호는 결호가 되면서 제51호(8월)가 발행되었다. '조선불교사'는 제50호(6월) 때까지 재단법인조선불교단회관내를 주소로 하고 있었지만, 제51호부터 '조선불교사'는 경성 장곡천마을 17번지(京城長谷川町一七番地)로 주소를 변경하게 된다. 또한 그때까지 주간이었던 나카무라는 8월부터 조선불교사의 사장으로 취임을 한다. 이때부터는 지금까지 없었던 5개 항목의 강령<sup>10)</sup>이 수립되는데, 이후 잡지 첫머리에 지속적으로 수록하게 된다. 이 잡지는 1936년 6월 제 121호 발행까지 확인되지만 중간 시기는 불명확하다.<sup>11)</sup> 다만 “기간지 조선불교는 불교단 결성 이래 매월 발행을 하였으며, 대동아전쟁 중에도 심각한 용지부족도 극복하여 발행을 계속해 왔다.”라는 나카무라(1969, 97)의 회고에서 알 수 있듯이 1940년대 초기까지 발행되었음으로 추정된다.

---

10) 첫째, 우리는 정신불타의 조감을 신뢰하고 현대 세상의 추이를 고려하여 국민정신의 작흥을 기한다. 둘째, 우리는 일류평등 천칙(天則)을 규명하고 공존동영의 실현을 기한다. 셋째, 우리는 삼현(三賢: 佛法僧)을 공경하고 인격 수양 및 사회생활 정화향상을 기한다. 넷째, 우리는 종파적 편집(偏執)을 초월하고 시대지식의 토구를 도모하며 건전한 신앙의 확립을 기한다. 다섯째, 우리는 특히 조선불교 흥륭(興隆)을 염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각종 조사 연구 및 이를 실행한다(『朝鮮佛敎』 1928/08).

11) 본 잡지는 1924년 5월 11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1936년 6월 제121호까지 확인되지만 그 이후의 잡지의 행방은 묘연하다. 이들 내용은 한국과 일본의 불교 관련 대학의 도서관에서 원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96년 민족사에서 출간한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의 영인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Ⅲ. 조선불교단의 포교유학생 파견 및 현황

조선불교단의 조선인 포교유학생 파견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를 참고하자면, 조선불교도들<sup>12)</sup>의 협력을 끌어내려는 강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고(마이카 아워백 2008, 28), 조선의 젊은 청년들을 선발하여 일본에 유학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총독정치를 찬양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민족운동 전선을 분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김순석 1995, 148), 예산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포교유학생 프로그램은 친일파 양성책의 중요 프로그램이라는 것(김순석 1995, 144)이다. 이 글 머리말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러한 연구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불교단의 친일 행적의 대표적 표상으로서 포교유학생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임에는 틀림없다.

이 장에서는 『조선불교』 잡지에서 수록된 조선불교단 포교유학생의 파견 경위와 현황을, 관련 자료와 유학생의 기고문을 통해 살펴보고, 이들의 동향에서 알 수 있는 친일의 의미와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포교유학생 파견 경위

조선불교단 포교유학생 파견 이전 『조선불교』 잡지에는 전도유망한 조선의 젊은 승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朝鮮佛敎』 1924/05, 7). 기고문을 통한 이러한 젊은 조선인의 소개는 일본 불교의 우월성과 호감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좋은 매개가 될 것이라 기대하였을 것이다. 포교유학생 파견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오늘날 조선불교 부진의 원인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인물의 불저(佛低)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중략) 그러나 조선에는 아직 이에 대한 어떠한 시설도 계획도 없다. 따라서 장래 유능한 인물을 양성할 방법이 없다. 조선불교계 장래를 생각할 때 유감천만한

12) 마이카 아워백은 이들을 일본 종단의 개종자, 일본에서 가르침을 받으려는 단기 방문자, 장기유학을 위해 일본 불교기관으로 온 학생을 일컫고 있다.

일이 아닐 수 없다. (중략) 조선불교계에는 인물을 교육시킬 만한 기관이 없다. 불교전문학교 설립의 목소리는 교무원 기관지상에서 강조되고 있지만, 실시 유무에 대해서는 현 단계로서는 의문이다. 따라서 인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조선 이외의 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불교교육 기관 발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은 일본을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불교단이 유학생을 일본의 종교대학으로 파견하는 것은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다(『朝鮮佛敎』 1926/04, 2-3).

즉, 조선에는 훌륭한 승려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불교 교육기관이 없어 젊은 승려를 양성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참담한 조선 불교계의 미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불교 교육기관에서의 학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근대문물을 수용한 일본불교야말로 조선 불교계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포교유학생을 파견하기 위해 '포교학생전형위원회'를 설립하고 포교유학생 선발기준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갔다(『朝鮮佛敎』 1926/04, 52). 포교유학생 선발기준과 관련해서는 보통 10명 기준으로 갑과 을로 구분하여 선발했는데, 1926년 '포교학생모집요강'을 참고하면 갑종학생은 '내지불교전문학교에 파견하여 졸업 후 약 1년간 지정한 일본사찰에서 포교사로 필요한 실습이 가능한 자, 연령은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고등보통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을종학생은 '일본 각종 본산에 파견하여 지정한 사찰에서 포교사로서 필요한 훈육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연령은 25세 이상 35세 이하로 보통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승적에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전형은 갑종학생의 경우 구두 신문과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을종학생의 경우는 국어, 한문, 불교학의 학술시험과 더불어 구두 신문과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때 유학 시 왕복 여비는 지원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朝鮮佛敎』 1926/01, 91).

1927년의 선발기준을 참고하자면 학생 선발기준은 동일하나 단 전형에서 을종학생의 학술시험의 산술 과목이 추가된 점과 학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점이 확인된다. 즉 '포교학생에게는 식비, 수업료, 학습상 필요한 교과서, 제복, 제모, 외투 및 신발 등을 지급하고 그 밖의(예를 들면 침구,

평상복, 속옷 외 일상생활에 필요한 잡비 등)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朝鮮仙教』 1927/02).

1928년에는 모집학생이 5명으로 감소되었다. 모집 내용과 지원사항은 전년도와 다를 바가 없으나, 다만 '지원자는 지급품 이외의 경비 본인부담에 대한 계약서(별지서식)를 지원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2기에 지원자가 많았던 점과, 포교유학생의 지원비가 예상외로 증가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모집학생을 5명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朝鮮仙教』 1928/02).

## 2. 포교유학생 파견 현황

한편, 1회 모집에 선발된 제1기 조선포교유학생은 김응진, 김동진, 김훈영, 장경모, 이관수였다. 이들의 현황은 김동진의 기고문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상당한 환대 속에 시작되었다. 그들의 일본에서의 첫 해의 동향을 김동진(『朝鮮仙教』 1926/02, 50-52 ; 1926/04, 33-35)의 기고문에서 개관하고자 한다. 대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25년 5월 20일 오전 10시 이들은 많은 사람들의 환송 속에 경성발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싣고 한양을 뒤로한 채 일본으로 향하였다. 무사히 도쿄역에 도착하자, '군'자 모양의 휘장을 단 사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가 조선포교유학생을 총괄 관리하는 도쿄지부장 사토 시게마쓰(佐藤稠松)였다. 그 외 마중 나온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으나 10여 명이 있었다. 사토씨에 의하면 그들은 불교연합회를 비롯하여 불교조선협회 및 신문기자, 사진기자였다. 이들의 안내로 스스키 하라(芒源)에 있는 조조지(増上寺)로 가서 먼저 연합회주사를 만난 뒤 본당을 참배하였다. 참배 후 객실로 이동하여 점심을 먹었는데, 이들은 식사 후 죽은 자를 모셔놓은 타마야(靈屋)를 참배하고 대단히 감명을 받았다 한다.

5월 28일 1기생들이 다닐 학교가 정해졌다. 김응진은 고마자와(駒澤) 대학, 김동진, 이관수는 릿쇼(立正)대학, 김훈영은 슈교(宗教)대학, 장경모는 도야마(富山)대학을 배정 받게 되었고, 학업에 매진하였다. 어느 날 조선협회 및 불교연합 주최로 일행의 환영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사토씨로부

터 듣고 환영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6월 13일, 지부로 집합하여 오후 1시 경 간다(神田)로 향했다. 일행이 중앙으로 자리를 안내받자 30명의 참가자가 좌우로 착석하였다. 불교연합회주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종교대학 교수인 와타나베 가이교큐(渡辺海旭) 교수로부터 20분 정도 훈화를 들었다. 김동진은 "그 말씀 중에는 일본불교의 부패한 형식을 모방하지 말고 학문으로서의 교리로서의 불교만을 학습하여 연마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말씀하셨다. 무엇보다 젊은 우리들에게 금과옥조 같은 교훈이었다."라고 회상하고 있다. 그 후 조동종 중무원교학부장 릿쇼대학 예과부장 등의 환영사에 사토 지부장 및 장경모, 김동진 두 학생이 답사를 하면서 환영회가 이어졌는데 오후 5시쯤에 종료되었다. 한편, 방학 때 닛코(日光) 주변의 사찰을 방문하는 등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다. 또한 매월 집회를 가지면서 생활이나 학습 면에 있어 도쿄지부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는데 적어도 월 2-3회는 도쿄 지부나 사토씨의 자택에서 가졌다고 한다.

이상의 내용에서 짐작하듯이 조선불교단 제1기 포교유학생들은 성대한 환영 속에 유학생생활을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기생들의 환영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와타나베 가이교큐가 훈화를 했다는 점이다. 와타나베는 정토종 승려로 12년간 독일 유학 경험과 다이쇼대학, 도요(東洋)대학교수를 다년간 지낸 엘리트 지식인이었다. 특히 독일 유학 경험을 살려 일본불교의 사회사업의 선봉적인 역할을 한 자이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의 신불교동지회 창설에 관여를 하기도 하였는데, 1920년대 일본의 신불교운동은 일본불교의 구습을 타파하고 사회 참여가 가능한 대중적 불교를 지향하는 운동이었다. 이 운동의 관여한 자들은 사회주의 성향을 지녔다 하여 일본 정부의 탄압을 받기도 하였다. 와타나베가 제1기 유학생의 환영회에 훈화를 했다는 점은, 조선불교단이라는 성격이 식민정책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만 작용하지 않았다는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13)</sup>

야심차게 시작한 조선포교유학생 1기생 파견은 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이관수가 학업 도중 귀국을 하게 되고 또한 불행하게도 일본이라는 타국

13) 참고로 신불교운동의 핵심적 인물인 사카이노 코요(境野黄洋)도 『조선불교』에 몇 차례 기고하고 있다.

땅에서 생을 마감한 학생도 있었다. 1기 학생 중 가장 유망한 학생으로 평가받았던<sup>14)</sup> 김훈영의 죽음에 대해 사토(『朝鮮仏教』 1926/03, 37-38) 지부장은 애도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의 죽음은 조선불교단 하나만의 불행은 아니다. 조선 이천만 동포의 불행, 조선 불교의 불행이다. 그가 이 중대한 사명을 자각하고 있었기에 평소 병약한 몸으로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작년 12월 2일 병원장으로부터 늑막염(중증)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당일까지 나에게게는 일절 비밀로 하고, 병고를 참으며 학교 강의에 나왔다. 그는 겉모습은 병약해 보였지만 신념에 있어서는 정신력이 뛰어난 용기 있는 자였다.

김훈영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추도회가 2월 28일 모교인 슈쿄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이때 참가자가 조선불교청년회기관지 『금광저』 주필인 김태흡, 동경 실업가인 김홍수, 니혼(日本)대학 졸업생인 유성관, 고등사범재학 중인 변선유 등과 조선불교단 유학생인 김관수, 김웅진, 장경모, 김동진, 도쿄지부장인 사토와 『조선불교』 주필 가와무라 고히(川村五峰)였다(『朝鮮仏教』 1926/03, 49).

1927년 2차 포교유학생의 모집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현황은 아래와 같다.

한편, 나는 이번에 조선불교단의 포교학생 모집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작년도에 5명, 올해는 8명을 채용했지만 그 희망자는 승려의 적을 가진 자는 1할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다른 희망자는 사찰과는 전혀 어떠한 인연도 없었다. 불교단이 처음에 이 포교유학생 양성의 계획을 세울 때에는 지원자의 8할은 승려의 자제라 예상했다. (중략) 작년도는 그 과반이 승려 출신이었지만 올해는 지원자 중 승려 출신은 겨우 2명밖에 없고 다른 지원자는 중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유능한 청년으로 선정 결과는 8명 중 1명이 승적을 가

14) 제1기 학생들의 성적을 소개하면서 김훈영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다(『朝鮮仏教』 1927/03, 36).

진 자였다(『朝鮮佛敎』 1926/04, 3-4).

이에 대해 나카무라(『朝鮮佛敎』 1926/04, 4)는 조선불교에 대한 조선인들의 이미지 쇄신이 이루어졌다고 기뻐한다. 승유억불정책을 펼친 조선시대에서는 양반들은 승려를 미천하게 여겼는데, 양반의 자제들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조선불교에 대한 희망이 보인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나카무라의 해석이 다소 변명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에 대한 검토는 향후 과제로 삼겠다.

제2기 포교유학생 중 갑종학생 8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을종학생은 1명 김홍주는 5월 1일부로 임명받게 된다(『朝鮮佛敎』 1926/05, 102).

**<표 1> 제2기 조선불교단 포교유학생**

배속 본산	학력	본적	이름
진종본원사과	양정고등보통학교졸업	전라남도 제주도	고순문
진종본원사과	경기제1공립고등보통학교졸업	경기도 양주군	김대한
진종대곡과	신의주공립고등보통학교졸업	평안북도 의주군	김효경
진종대곡과	徵文공등보통학교졸업	경기도고양군	최거덕
입제종	동	강원도 고성군	문창안
묘심사과	양정고등보통학교졸업	충청남도당진군	유현준
고의진언종	경기제1공립고등보통학교졸업	경기도이천군	권영갑
고의진언종	양정고등보통학교졸업	경상북도 예천군	이구성

한편, 마에다 노보리(『朝鮮佛敎』 1926/04, 5-7)는 제2기 포교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송별사에서 “본단은 완전한 법인조직으로서 조선 불교의 진흥 보급을 위해 민심을 교화선도하고 민중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단은 순수종교단체라기보다도 종교로서 민중을 지도하려고 하는 사회적 사업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다음의 내용에서는 조선불교단 포교유학생으로서의 사명감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포교학생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도쿄에는 본단 지부의 사토씨가 담당하고 있고, 교토는 본단 교무고문 오니시(大西大僧正)가 지도감독

을 담당하고 있는데 학업을 연마하는 데 있어 전혀 불편함이 없어서 실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은 본단의 포교학생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개인 유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명은 중대하다. 이 중대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태만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안 된다. 조선에서 왔다고 하면 평상시에도 특히 주의를 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어리석어 보인다면 바보취급을 당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소 현명하게 행동한다면 찬탄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일거수일투족을 삼가고 본단 및 모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선인을 멸시하는 다소 강한 어조로 조선불교단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거듭하고 있다. 또한 아래처럼 학업과 성적 면에 있어서도 다음에 출발하는 포교유학생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할 것을 당부한다.

또 본단에서는 작년 제1회 포교학생을 파견하고 지금은 제2회 파견하고 있지만 제1회 학생 중에는 일본학생 정도의 훌륭한 성적을 보이는 학생도 있지만 불행히도 한 명은 병환으로 인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 초기 학생의 성적은 후기에 이쪽으로 발송되는데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파견되어 우수한 성적을 내야하는 이유는 다음에 유학할 학생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연대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일을 명심하고 중대한 책임감을 가지기 바란다. 각자 학업에 전력을 다하고 건강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완전한 인격을 양성하여 조선불교진흥의 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朝鮮仏敎』 1926/04, 7).

이러한 당부 탓인지 1927년 1학기 성적에 대해서는 흡족하게 평가하고 있다. 해당 학교 측에서 받은 성적은 1학기 평균점수, 소행, 포교사로서의 적합 여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은 이는 2기 유학생인 권영갑이고, 도중 귀국했던 1기 유학생인 이관수는 포교사로서 가장 유망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15)</sup> 하지만, 조선 포교유학생의 성적표는 성

15) 이때 성적이 나온 이들로는 1기생의 이관수, 장경모, 김태성, 김응진, 2기생은 김

적이 부진한 탓인지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제2기 포교 유학생 중에 주목되는 이는 김효경이다.<sup>16)</sup> 김광식은 조선불교단의 포교유학생으로서의 김효경에 대해 탐구하였는데, 김효경에 대해 “지금껏 식민지(조선)와 제국(일본)의 사이에서 이중적인 삶을 구현 하면서 학문을 연마하였던 경계인, 잊혀진 학자, 재평가를 해야 할 지식인”이라 언급한다. 이러한 평가는 『조선불교』 기고문의 내용에서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

김효경(『朝鮮仏教』 1933/09, 13-14)은 “조선의 신앙상태 현황(朝鮮における信仰狀態の現状)”이라는 기고문에서 조선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인식의 배경에는 그 나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문화는 인간생활의 사상적 표현이기 때문에 인간 사상의 근저를 이룬 생활의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신앙의식이라 한다. 이 신앙현상이야말로 생활의 이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므로, ‘조선적’인 것을 어떠한 꾸밈없이 볼 수 있는 하나의 문화현상이라 피력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김효경은 “조선 종교의 사회적 지위, 민중 침투의 정도,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고, 불교, 기독교, 신도 등의 교회, 사회, 교직자, 신자, 사회적 시설, 교육의료구제기관 등의 통계까지 포함하면서, 유사종교단체의 경우 국의 감시하의 천도교와 같은 고유종교의 개요, 또는 종단은 없지만 정신 생활에 깊이 뿌리내려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민간신앙인 무당, 풍수 등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조선종교의 전모를 개괄하고 있다. 이렇게 조선종교의 특징을 집약할 수 있는 학문적 수학능력을 겸비한 것은 그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상대화시켰을 때 더욱 가능했을 것이다. 일본불교와 관련해서는 일본불교의 조선인 신자수를 나열하면서, 실패하는 원인에 대해서 반

효경, 권영갑이다. 그 외의 학생 성적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 단 여기서 김태성은 1기생 멤버로 되어 있지만, 1기생 소감을 기고한 김동진의 문장 속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 김동진의 성적이 누락된 것인지, 동일 인물인지, 오류인지 향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朝鮮仏教』 1927/03, 36). 참고로, 후술하는 포교유학생 제1회 졸업생 멤버에는 김동진이 포함되고 김태성은 확인이 안 되지만, 김광식(2017)의 논고에서는 제1회 포교유학생 멤버에 김태성이 포함되고 김동진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

16) 김효경에 대해서는 종교학, 민속학, 인류학 등에서 접근한 연구가 있었지만 불교학계에서의 연구는 전무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김광식은 조선불교단과 김효경, 허영호와 김효경이라는 접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김광식 2017).

성해야 함을 강한 논조로 비판한다. 이러한 김효경의 언설 속에는 조선불교단 포교유학생이라는 일본제국을 등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비판도 주저하지 않고, 또한 조선의 문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일본 제국에 표출하려는 식민지와 제국의 경계인으로서의 입장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제3기 포교유학생으로 파견된 갑종학생은 아래 표와 같다(『朝鮮叢教』 1927/03, 45-46).<sup>17)</sup> 이들은 마에다 부단장으로부터 수학 중의 마음가짐과 유학생회에 전반에 대한 당부의 얘기와 함께 유학길에 오르게 된다.

<표 2> 제3기 조선불교단 포교유학생

배속 학교	학력	본적	이름
슈치대학 전문부	함흥고보	함경남도 문천군	최경상
오타니대학 전문부	평양고보	평안남도 평양부	원대겸
류큐쿠대학 전문부	경성제2고보	경성부	박승훈
고마자와대학 전문부	경성제2고보	충청남도 보령군	이동희
하나조노대학 전문부	진주고보	전라북도 진안군	손항균
아이쇼대학 전문부	경성제2고보	충청북도 충청군	류용손

이들 중 이동희(『朝鮮叢教』 1927/09, 31-32)의 고마자와 대학에서의 유학생회에 대해 그의 소감문을 참고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자.

나는 올해 조선불교단 포교학생으로 선발되어 원장의 지명으로 고마자와대학 전문부 1학년에 입학하였다. (중략) 여기서 내가 절실하게 느낀 점은 선생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실로 감탄할 만하다는 점이다. 조선에서 나는 이와 같은 친근한 사제관계 속에서 선생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본적이 없다. 실로 현대 소위 신교육에 있어서 대단한 점이 아닐 수 없다.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만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교육, 즉 학교라는 곳은 인간의 근본적 자질을 연마하는 곳이다. 사랑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학생도 이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이심전심으로 학생은 그것을 선생

17) 또한 『朝鮮叢教』 42호 10월의 사진에 을종학생에 대해서는 ‘을종포교학생학술시험집행’에 조오조, 황자운 2명이 시험을 본 기록은 있지만, 합격하여 유학길에는 올랐는지는 불명확하다.

으로부터 마침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교육인 것이다.

일본 유학생회에 있어 대단히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음을 피력하면서 후반부에는 일본 학교에서의 훌륭한 사제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조선에서의 상황과 비교하는 논조는 일본의 선진 교육 향유와 만족스러운 유학생회에 대한 고마움 등을 선전하려는 기고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가교적 역할이 『조선불교』라는 잡지 매체다. 이러한 유형 - 일본의 선진적 문물을 찬양하고, 그러한 문물에 용해되어 일본에 동화되는 듯한 - 의 기고문은 굳이 본고에서 소개하지 않더라도 『조선불교』 잡지에 산재되어 있다. 다시 말해 흔히 일컫는 '친일'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장들이다. 그러나 이동희가 느낀 학교, 교육, 스승, 학생이라는 개념은 조선에서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음에 틀림없다. 이는 식민지공간이 아닌 일본이라는 제국공간에서 경험한 근대 교육 문명이었고, 여기서 이동희는 일본제국보다 못한 식민지 조선이라는 현실을 수용했을 때의 적잖은 식민지라는 근대성의 한계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식민지 정책에 협력하는 그러한 '친일'의 의미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포교유학생 파견은 4기와 5기를 마지막으로 조선불교단의 재정 상태 등으로 1930년부터는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김광식 2017). 제4기 포교유학생 선발 시에는 지원자 30명 중 최종적으로 5명이 합격하였고, 5기 포교유학생은 최종적으로 4명이 합격하게 된다. 4기와 5기의 포교유학생 명단은 아래와 같다(『朝鮮佛敎』 1928/04, 38).

<표 3> 제3, 4기 조선불교단 포교유학생

제4기		제5기	
학력	이름	학력	이름
함흥고보	박승록	경성제2고보	노도양
함흥고보	안중호	경성제1고보	차동미
경성제2고보	심두섭	전주고보	김평기
평양고보	임철재	청주고보	임봉소
보성고보	이용운		

한편, 이들 조선포교유학생들은 조선불교단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조선 불교단 도쿄유학생회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그 취의서에는 “월 2회(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 회합일로 정하여 불교 일반학 관련 연구 및 발표, 전도법 연구, 실습을 하며, 또한 사회사업과 관련된 공사 모든 단체 견학을 위해 조선불교단 도쿄유학생회를 조직한다. 또한 소정의 회합을 실시하고 연구발표 논문 및 견학사항 등의 보고서는 『조선불교』에 게재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이 1928년의 일이다(『朝鮮佛敎』 1928/08, 27).

같은 해 조선불교단에서 파견한 포교유학생 제1회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조선불교』 46호(1928/02)에는 올해 졸업하는 불교학생의 명단을 제시하고 있는데, 조선불교단 포교유학생을 포함한 총 8명의 학생의 이름을 실고 있다. 이때 조선불교단의 졸업생은 김동진(입정대학종교학과), 장경모(대정대 불교학과), 이관승(대정대 불교학과)이다(『朝鮮佛敎』 1928/02, 37). 같은 해 8월 『조선불교』 51호(1928/08)에는 ‘불교단 제1회 졸업포교학생’이라는 제목으로 기념 촬영 사진이 수록되었다. 사진에 대한 설명은 “조선 불교단이 조선불교진흥 사업을 기획하여 조선청년을 선발하여 내지불교대학에 위탁 학습시켜 금년 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것은 기뻐 따름이다. (사진인물은-필자) 장경모(대정대학 졸업 천태), 김효경(다이쇼대학재학, 정토), 류용손(다이쇼대학 재학, 정토), 이동희(고마자와대학 재학, 조동), 권영갑(다이쇼대학, 정토), 김응진(고마자와대학 재학, 조동), 이관수(다이쇼대학, 진언종도야마), 유학생 감독(사토 시게마쓰), 김태성(다이쇼대학졸업, 일련)”(『朝鮮佛敎』 1928/08)이다. 기념촬영은 재학생과 함께 한 것으로 이때 졸업생은 제1기 포교유학생인 장경모, 이관수, 김태성을 일컫는 것 같다. 이후 졸업생에 대한 내용을 현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이에 대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로 이관수는 앞서 언급한 성적에서도 포교자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은 바, 같은 해 도치키(栃木)현 아시카가(足利)군의 게소쿠사(鷄足寺)에서 고바야시 쇼세이사(小林正盛師)를 계사(戒師)로 득도식을 거행하고 동시에 ‘호성(昊盛)’이라고 명받았다 한다(『朝鮮佛敎』 1928/05, 48).

나카무라는 1969년 그의 회고록에서 “조선불교단은 재단법인으로서 강고한 단체조직으로 조선청년을 선발하여 일본 대학으로 유학 보낸 것이

30여 명에 이르렀다.”고 회상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기-제5기까지 갑종, 을종 학생을 포함하면 29명이기에 사실상 제5기 선발로 포교유학생프로그램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 IV. 맺음말: 포교유학생의 “친일” 양상과 그 의미

일반적으로 친일파라 하면 “일본제국주의의 주권 침탈과 식민 지배 및 침략전쟁에 의식적으로 협력한 자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발적이든 피동적이든 우리 민족 또는 민족 성원에게 신체적·물질적·정신적으로 직간접적이든 상당한 피해를 끼친 행위자, 또한 부일협력자와 민족반역자 모두를 총칭하는 용어”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이만열 2001, 7).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조선불교단의 ‘친일’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 왔는가?

지금까지의 ‘조선불교단’의 친일의 양상은 관련 인물들을 중심으로 위의 개념과 정의에 의거한 ‘계산법’에 의해 탄생되었다 할 수 있다. 즉, ‘일본 제국, 조선총독부, 일본불교, 일본인에 협력하여 내선융화, 황민화운동을 추진한 자들로 평가된 자, 그리고 조선독립운동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자들과 관계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미 ‘친일’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계산법 적용하에 조선불교단에서 파견된 조선인 포교유학생은 자동적으로 ‘친일파’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된다. 오늘날 한국의 근대 역사를 위의 친일파 계산법인 현재적 관점에서 인식할 때, 조선불교단이라는 단체에 참여한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이러한 단체의 포교유학생으로 지원 및 선발, 유학을 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친일파’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등식 성립에 대한 재고를 위해 조선불교단에서 파견한 조선인 포교유학생의 실태와 함께 그들이 기고한 문장 속에서의 ‘친일’<sup>18)</sup>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대략 30명의 포교유학생 중 『조선불교』 잡지의 몇몇 유학생의 기고문에 그쳤지만, 이 속에서

18) 필자가 주장하는 친일의 의미로 기술할 때는 “친일”로 표기했다.

드러나는 “친일”의 의미는 오늘날의 ‘친일-항일’의 이분법적인 역사인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친일”이 존재하고 있었다.

『조선불교』 잡지라는 ‘언설공간’은 위의 친일과 셈으로 계산하자면, 당연히 친일 불교, 친일 조선인 양성을 위해 치밀하고 획일적인 언설공간이어야 한다. 이를 매개로 하여 일제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친일 조선인을 양성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친일단체로 불리는 조선불교단이라는 집단의 성격과는 다소 부적절하고 엇갈린 조선인과 일본인의 목소리가 『조선불교』라는 언설공간에 한데 어울려져 있음을 앞서 확인했다. 즉, 친일단체, 친일조선인이라고 간주되는 친일적인 공간에는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오늘날의 획일적인 친일의 개념이 아닌 중층적인 “친일”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고찰한 조선불교단의 포교유학생의 친일의 양상은 근대화된 문물에 대한 동경심이 단연 두드러진다. 일본 사찰을 방문하고 또한 와타나베와 같은 저명한 교수의 훈화를 들으면서 감탄하고, 또한 조선에서 볼 수 없었던 사제관계에 존경을 표하기도 한다. 즉, 여기서 의미하는 “친일”은 단어 그대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동경, 친밀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일본의 선진적 문물을 동경하고 그러한 문물에 용해되어 일본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식민지공간이 아닌 일본이라는 제국공간에서 경험한 근대문명에 대해 일본제국보다 못한 식민지 조선이라는 현실을 수용했을 때의 적잖은 식민지라는 근대성의 한계도 느꼈을 것이다. 즉, “친일”로 인해 새롭게 양산되는 또 하나의 근대성인 것이다. 또한 김효경의 언설 속에는 조선불교단 포교유학생이라는 일본제국을 등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비판도 주저하지 않고, 또한 조선의 문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일본제국에 표출하려는 식민지와 제국의 경계인으로서의 입장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일본이라는 타자와 “친해”짐으로써 조선, 조선인이라는 주체성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그들에게 있어 “친일”은 단순하게 일제에 동조하는 그러한 의미의 ‘친일’은 분명 아니었다.

이렇게 그들이 경험한 “친일”은 귀국 후 어떠한 행보를 보였을까? 모두에 언급했듯이 조선불교단 조선인 포교유학생들의 친일 행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학생들 개개인의 삶 전체를 시야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귀국 후 그들의 동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탐구로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 | 참고문헌 |

### 1. 논문 및 단행본

- 강문선 (2016). “1920-1940년대, 일본인의 조선불교부흥운동과 그 양상: 나카무라 겐타로(中村健太郎)의 『朝鮮生活 50년』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제85집, pp. 395-420.
- 김광식 (1996).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민족사.
- \_\_\_\_\_ (2017). “김효경의 불교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조선불교단의 제일 불교유학 생 사례.” 『근대서지: 반년간 2017 제15호』. 소명출판, pp. 341-360.
- 김순석 (1995). “조선불교단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9호, pp. 125-148.
- 마이카 아워백 (2008). “‘친일불교’ 역사학의 재고: 조선불교단과 1920년대 조선에 서의 승려결혼에 대한 논쟁.” 『아세아연구』. 제51권. 제3호, pp. 15-53.
- 윤기엽 (2017). “일제강점기 조선불교단의 연원과 사적 변천: 조선불교단 임원진의 구성과 이력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97권, pp. 293-322.
- 이만열 (2001). “친일과의 개념과 범주.” 『친일인명사전위원회 제1차 국민공청회 자료집』. 민족문제연구소, pp. 4-25.
- 孫知慧 (2016). “植民地朝鮮における中村健太郎と朝鮮仏教団の活動とその意義.” 『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 第9号, pp. 283-303.
- 齋藤實 (1990). 『齋藤實文書: 朝鮮總督府時代關係資料』. 高麗書林.
- 中村健太郎 (1969). 『朝鮮生活五十年』. 靑潮社.
- 中村直樹 (2013). 『植民地朝鮮と日本仏教』. 三人社.

### 2. 기타

- 今年卒業の仏教學生. 『朝鮮仏教』. 제46호. 1928년 2월.
- 金東鎭. “留學第一年.” 『朝鮮仏教』. 1926년 2월.
- \_\_\_\_\_. “留學第一年(承前).” 『朝鮮仏教』. 1926년 4월.
- 金孝敬. “朝鮮における信仰狀態の現状.” 『朝鮮仏教』. 1933년 9월.
- 大海一瀾. “布教留學生金勳永君追悼會.” 『朝鮮仏教』. 1926년 3월.
- 本團布教學生の得度式. 『朝鮮仏教』. 1928년 5월.
- 仏教団第一回卒業布教學生. 『朝鮮仏教』. 1928년 8월.
- 三笑生. “金鼎堂和尚.” 『朝鮮仏教』. 1924년 5월.
- 小林源六. “朝鮮行脚の念願.” 『朝鮮佛教』. 1926년 1월.

- 李東熙. “我が駒澤大學と私の所感.” 『朝鮮仏教』. 1927년 9월.
- 前田昇. “朝鮮仏教振興の大理想を實現するに努めよ: 第二回布教留學生送別辭の大要.” 『朝鮮仏教』. 1926년 4월.
- 朝鮮仏教団彙報. “朝鮮仏教団 大正十五年度 事業概況.” 『朝鮮仏教』. 1926년 2월.
- \_\_\_\_\_. “布教學生の派遣.” 『朝鮮仏教』. 1926년 12월.
- 佐藤稠松. “金勳永を憶ふ.” 『朝鮮仏教』. 1926년 3월.
- 中村健太郎. “僧侶の弱点と無自覺.” 『朝鮮仏教』. 1924년 5월.
- \_\_\_\_\_. “創刊三周年の記念日を迎へて.” 『朝鮮仏教』. 1927년 5월.
- \_\_\_\_\_. “朝鮮仏教’の更新に際して滿天下に告白す.” 『朝鮮仏教』. 1928년 8월.
- \_\_\_\_\_. “我が朝鮮仏教’の使命.” 『朝鮮仏教』. 1928년 9월.
- \_\_\_\_\_. “朝鮮仏教大會”の開催を贊す.” 『朝鮮仏教』. 1928년 11월.
- \_\_\_\_\_. “創刊十周年記念を迎ふに當りて.” 『朝鮮仏教』. 1933년 5월.
- 中村三笑. “布教學生の教養と半島仏教の將來.” 『朝鮮仏教』. 1926년 4월.
- \_\_\_\_\_. “半島仏教の興隆と朝鮮仏教団.” 『朝鮮仏教』. 1927년 12월.
- “朝鮮仏教大會實行案.” 『朝鮮仏教』. 1924년 12월.
- “朝鮮仏教団東京留學生界趣意書.” 『朝鮮仏教』. 1928년 8월.
- “朝鮮仏教団布教留學生學業成績.” 『朝鮮仏教』. 1927년 3월.
- “朝鮮仏教団布教學生募集要項.” 『朝鮮仏教』. 1928년 2월.
- “布教學生の詮衡.” 『朝鮮仏教』. 1928년 4월.
- “布教學生の合格決定.” 『朝鮮仏教』. 1927년 4월.
- “布教學生募集.” 『朝鮮仏教』. 1926년 1월.
- “布教學生募集要項.” 『朝鮮仏教』. 1927년 2월.
- 澁澤榮一伝記資料. [https://eiichi.shibusawa.or.jp/denkishiryō/digital/main/index.php?DK420012k\\_text](https://eiichi.shibusawa.or.jp/denkishiryō/digital/main/index.php?DK420012k_text). (2017년 8월 15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7년 08월 17일 |

| 논문심사일 : 2017년 08월 25일 |

| 게재 확정일 : 2017년 09월 08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4 No. 3 (2017)

**Trend of Buddhist Students in Japan from the  
Colonial Joseon:  
Focused on Joseon Students Who Studied and Propagated  
Buddhism in Japan from ‘Joseon Buddhist Association’**

**Jum-Suk Je**

(Dept. of East Asian Studies, Dongseo University)

‘Joseon Buddhist Association’ can be defined as a representative pro-Japanese group that made Joseon Buddhism serve the government and trained the Pro-Japanese Joseon people. Especially, Joseon students who left for Japan to study and propagate Buddhism under the full support of the ‘Joseon Buddhist Association’ have become a representative emblem of ‘Japanophilism,’ which even gave birth to a modifier of a married Buddhist priest who imitated Japanese Buddhism and ruined the traditional Buddhism and Dharma Buddhism. But ironically, there have been few studies that concretely investigated their activities. Even the actual state of ‘Joseon students who propagated Buddhism in Japan’ is not well understood. Then, what activities of them at the time could be regarded as ‘pro-Japanese activities’? Taking this question into consideration, this study would discuss the actual state and trend of ‘Joseon students who propagated Buddhism’ from the Joseon Buddhist Association through the magazine Joseon Buddhism, published by the Joseon Buddhist Association. Through this, this study would draw the meaning and aspect of pro-Japanese activities of the Joseon Buddhist Association and ‘Joseon students who studied and propagated Buddhism’ concretely.

식민지 조선 재일불교유학생의 동향: '조선불교단' 포교유학생의 “친일” 양상을 중심으로 69

- Key words: Joseon Buddhist Association, Joseon Buddhism, Joseon Students Who Propagated Buddhism in Japan, Japanophilism, Modern Buddhism